

설리, 김민준 브랜드 디렉터와 핑크빛 열애
 가수 설리(23)가 새로운 사람에 빠졌다. 설리는 최근 브랜드 디렉터 김민준(34)과 교제 중이라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10일 밝혔다. SM은 "두 사람이 최근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올해 초 지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인연을 맺었다.



김준호·김대희도 돌아온다...1000회까지 GO~

900회 맞는 '개그콘서트'

28일 특집 방송 유재석·김병만 등 출연원년 멤버 김대희 "900회로 복귀" 감격 이정규 PD "1000회, 그날까지" 소망도

18년 동안 대중에게 웃음을 안겨준 KBS 2TV '개그콘서트'가 28일 900회를 맞는다. 1999년 9월4일 방송을 시작해 현존하는 최장수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의 영광스런 날이다. 오늘에 이르러까지 '개그콘서트'(개콘)는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신선한 기획과 아이디어로 승부해왔다. 솔한 유행어와 개그 스타를 배출했다. 코미디 프로그램의 쇠퇴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며 2009년 폐지된 MBC '개그야', 현재 방송 중인 SBS '웃찾사-레전드 매치'와 케이블 채널 tvN '코미디 빅리그' 탄생에도 물꼬를 댔다. 현재 위기의 조짐이 보이지만 여전히 '개콘'에 거는 시청자의 기대는 높다.

●'26년차' 유재석부터 '2년차' 손별이까지

'개콘' 900회 특집은 선후배 화합의 장으로 꾸며진다. 현재 '개콘'에 출연 중인 개그맨뿐 아니라 KBS 공채를 통해 발탁된 많은 희극인들이 함께 웃음을 선사한다. '개콘'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지만 2007년 400회와 2009년 10주년에 게스트로 출연했던 유재석(1991년 데뷔)이 900회에도 출연한다. 2000년대 후반 '개콘'의 부흥을 일군 김준호와 김대희(1999년), 김병만(2002년), 이수근(2003년), 유세윤과 강유미(2004년), 신봉선(2005년) 등이 미래를 이끌 서태훈(2011년), 이수지(2012년), 막내 손별이와 박진호(2016년) 등과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1박2일'의 김종민·데프콘·정준영과 연기자 김용수와 남궁민, 걸그룹 트와이스 등이 초대 받았다.



이에 앞서 출연진과 제작진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별관 공개홀에서 900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준호는 "되돌아보니 100개 이상의 코너를 해오며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다"며 "가슴이 찡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개콘'이 정규 편성 전 파일럿으로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해온 김대희는 "2년 5개월 동안 쉬다 처음으로 선 무대가 900회라 감회가 새롭고 벅하다"고 감격스러워 했다. 방청객에서 '개콘' 식구가 된 이수지는 "첫 무대 때 한 마디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객석을 향해 인사하며 눈물이 났다"고 떠올리며 "아이디어 회의가 힘들기도 하지만 공들여 준비한 즐거움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손별이와 박진호는 "지난해 7월 합격해 1년이 채 안됐음에도 900회를 이끈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앞으로의 '개콘'을 이끌어가는 후배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KBS 2TV '개그콘서트'가 900회(28일)를 맞아 14일부터 3주 동안 특집으로 방송한다. 데뷔 26년차 유재석부터 프로그램의 시작을 함께 한 김준호와 김대희 등 18년 동안 프로그램과 인연을 맺은 희극인이 총출동한다. 사진제공 KBS

●1000회를 기다리며

제작진은 900회 특집을 14일부터 3주에 걸쳐 내보낸다. 앞으로도 방송을 계속 해나간다면 2019년 6~7월 1000회를 맞게 된다. 현재 '개콘'이 한 자릿수 시청률 등으로 부침을 겪고 있어 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제작진과 출연진은 어려움 속에서 자부심과 변화로 반등을 꾀하고 있다.

연출자 이정규 PD는 "출연진이 잘 짜여진 대본과 콩트의 완성도를 중시해 시청자의 눈에 띄는 캐릭터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형식과 관점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완벽한 준비로 한번에 확 변화를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6월 김준호와 김대희의 복귀도 반등의 열쇠다. 이 PD는 "2001년부터 일요일 밤 방송해왔다. 1000회의 그날까지 대중에게 즐거움과 '일요일'을 잊을 수 있는 일요일 밤의 '개콘'으로 남고 싶다"고 밝혔다. 백승미 기자 bsm@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트리플H 현아 "유비논란, 무대서 풀 속제"



그녀 포미닛 출신 현아가 이끄는 혼성 유닛 트리플H의 신곡이 KBS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현아와 그룹 펜타곤의 이던, 후이로 구성된 트리플H의 '꿈이야 생시야'에 대해 KBS가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꿈이야 생시야'가 이들이 1일 내놓은 첫 앨범 '199X' 수록곡이다. KBS는 현아와 이던이 작사에 참여한 노랫말에 남녀의 정사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아는 트리플H의 뮤직비디오 선정성 논란에 대해 1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논란이 된 부분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줬으면 한다. 무대에서 풀이갈 속제다"고 밝혔다.

KBS, 대선 개표방송 시청률 10%로 1위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시청률의 승자는 KBS였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KBS 1TV는 '9시뉴스'를 포함해 1~3부 개표방송 평균 시청률 10%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JTBC로 평균 7.9%를 기록했다. SBS는 평균 5.6%로 3위였다. 실시간 방송 시청률 조사 전문 기관 ATAM에 따르면 오후 8시 투표 마감 직후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발표 시점에서 SBS가 시청률 9.558%로 가장 높았다.

에이핑크 정은지, 내달 데뷔 첫 단독 콘서트



그녀 에이핑크 정은지가 데뷔 6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펼친다. 정은지는 10일 에이핑크 공식 팬카페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은지는 6월3일과 4일 서울 이화여대 삼삼홀에서 첫 단독 콘서트 '다락방'을 연다. 그는 4월 미니 2집 '공간'을 내놓으면서 '소극장 라이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기협, 13일 가정의 달 영화 무료 시사회

한국영화기자협회(영기협)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구임대 지역 어린이 및 가족들을 초청해 영화 무료 시사회를 진행한다. 영기협은 13일 오후 2시 서울 CGV영등포에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영구임대 단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영화나눔 행사를 열고, 애니메이션 '보스 베이비'를 단체관람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이번 행사를 준비한 영기협은 앞으로도 온 가족이 함께 볼 만한 '좋은 영화'를 선정, 무료 시사회를 정례화하고 초청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무료 초청 시사회는 CJ엔터테인먼트가 후원한다.

'프로듀스101' 과도한 방청객 몫 수색 논란

케이블채널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2' 제작진이 일부 방청객을 상대로 과잉 수색을 했다는 논란이 휩싸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일부 방청객이 녹화 현장 입장 전 경호원이 신체를 접촉하는 등 과도하게 수색해 수치심을 느꼈다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제작진은 10일 "본의 아니게 불쾌감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논란이 벌어질 과정에 대해서는 "시즌2 때 방청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촬영 내용이 유출됨에 따라 현장 보안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심 스틸러' 조우진

영화·드라마서 미친 존재감 과시 '천의 얼굴'...광고계 러브콜 쇄도



조우진

신 스틸러를 잇는 새로운 '심(心) 스틸러'의 등장이다. 영화 '내부자들'의 조 상무와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도깨비'에서 김 비서 역으로 화제를 모았던 조우진이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중형무진하고 있다. 하나의 모습에 국한되지 않고 때면 다른 매력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오랜 무명생활을 보냈지만 그림수록 풍부한 연기 경험과 개성을 더하며 데뷔 이후 처음으로 전성기를 맞이했다.

조우진은 현재 방송 중인 tvN 금토드라마 '시카고 타자기'에서 출판사 대표 역을 맡고 유아인과 '브로맨스'를 선보이고 있다. 화려한 컬러의 재킷에 선글라스 등으로 한껏 멋을 부린 모습이 우습기도 하지만 정확한 일처리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도깨비' 속 김 비서의 모습을 쉽게 잊게 만들 정도로 변신을 꾀했다.

무대를 옮기면 활약상이 더욱 돋보인다. 그는 3월 개봉한 영화 '보안관'에서 선철 역을 맡아 흥행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극중 동네의 행동대장격으로 '민상'과 시골 청년의 순수한 매력을 동시에 드러낸다.

덕분에 조우진의 SNS 팬 사이트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났고, 그의 친근한 매력으로 광고주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그는 최근 5편의 광고를 추가했다. 광고계에 따르면 조우진은 화장품, 패밀리 레스토랑, 음료, 금융,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광고를 섭렵했다.

조우진의 기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안에 개봉 대기 중인 영화가 줄줄이다. '리얼 V.I.P.' '남한산성' '형제는 용감했다' 등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관객과 만나며 대세 행렬을 이어갈 기세다.

이정규 기자 annjoy@donga.com

문재인 시대, 연예계도 희망의 문 열릴까

한중 관계 개선...한류 제재 해결 기대 영화계 양극화 해소 등 공약 이행 관심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문화산업 관련 공약의 실현에 대한 연예계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선서식을 TV로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모습. 뉴스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하면서 향후 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연예계에서도 비장한 사색을 보였다. 가장 큰 관심은 중국 한류다.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한한령'(한류금지령)으로 문이 닫힌 상태가 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약속하며 유연한 입장을 밝혀 향후 경색된 한중 관계가 풀리고 한류 콘텐츠 수출도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영화계 양극화 현상 개선을 비롯한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등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공약을 내걸었다.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는 특히 영화계의 관심을 모은다. 문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이던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SM아티움에서 엔터테인먼트업계 관계자

들을 만나 "영화산업의 경우 배급망을 소유한 대형 제작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이와 손잡지 못한 영화들 열심히 제작해도 상영 기회를 얻지 못하는 양극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CJ, 롯데 등 영화 투자배급과 극장사업을 함께 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지 관심이 높다. 이와 함께 예술인의 정신적·경제적·사

회적 권리 보장의 제도적 근거 마련,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도 공약했다. 대형 제작사와 중소기획사 간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과 음악 저작권료 제도 개선도 약속했고,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현장 스태프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고 밝혀 향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년버벌 코미디 '용알스' 해외서도 주목

英 에든버러 페스티벌 2년 연속 초청



용알스

년버벌 코미디팀 용알스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나선다. 용알스는 개그맨 조수원, 채경선, 조준우, 최기섭, 하박 등으로 구성된 8인조 년버벌 코미디 퍼포먼스 팀이다.

이들은 8월2일부터 28일까지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무대에서 관객을 만난다. 매년 각국의 많은 공연팀이 현장에서 재능을 과시하는 가운데 용알스도 합류하게 됐다. 지난해에도 같은 곳에서 공연을 펼친 이들은 이미

2009년 현지 길거리에서 처음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 주목 받고 2010년과 2011년 정식 무대에 섰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매년 8월 영국 에든버러에서 펼쳐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축제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앞서 열리는 무대.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에든버러 페스티벌 못지 않게 명성을 얻고 있다. 특히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1947년 에든버러 페스티벌이 탄생할 당시 공식 초청을 받지 못한 팀들이 스스로 공연을 하면서 이름을 얻었고, 본 페스티벌의 이름값을 더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이 같은 무대에서 용알스는 2010년과 2011년 관객 평점에서 만점인 별 5개를 받으며 인기를 모았다.

용알스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과 함께 또 다른 명성을 얻고 있는 멜버른 국제코미디페스티벌에도 지난해 아시아팀 최초로 3년 연속 초청받은 바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

편집 | 유진환·고창일 기자

순위	제목	작가
1	언어의 온도	이기주
2	자존감 수업	윤홍균
3	보노노처럼 살다나 다행이야	김신희
4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5	1시간에 1권 킨덤 독서법	김병환
6	타이탄의 도구들	팀 페리스
7	제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
8	새벽 세시...한정만 에디션 세트	홍윤, 새벽, 동그
9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10	기린의 날개	히가시노 게이고